한 초등과학 영재의 외로움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김희경 · 권혁순†
(증안초등학교) · (청주교육대학교)†

Narrative Inquiry on a Scientifically Gif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Loneliness

Kim, Hee Kyung · Kwon, Hyeoksoon†
(Jeungan Elementary School) ·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by narrative inquiry, suggested by Clandinin and Conelly (2000), in order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neliness experienced by a scientifically gifted elementary school student. The participant of this study was sixth grade student from the Institute for Science Gifted in C University. The data were gathered via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on the participant and her teacher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can make the following four conclusions with regard to the loneliness experienced by a gifted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science. First, some characteristics of the gifted child may make her feel loneliness in the relationships she has with peers, siblings, and parents. Second, parent's repression makes the gifted child feels lonely. Third, the gifted child who feels lonely get consolation from her own subjective world and wants to get recognition from others. Fourth, the educational institute for the gifted serves as a place of education that fosters the gifted child's cognitive development and simultaneously it is where she can form positive relationships with her peers, as well as being a place of emotional comfort.

Key words : science gifted, loneliness, narrative inquiry

I. 이야기를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영재는 지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뛰어난 성취를 이룬 영재들은 지적 능력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으로도 우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조석희, 1996). 영재 아동이 학교에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보고되었다(여상인과 박상희, 2005; 유미현 등 2011; 윤초희 등 2004). 그러나 최근에는 영재의 인지적 특성뿐 아니라, 영재의 정의적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영재들이 경험하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서우경, 2003; 최은선, 2004; 최은혜와 이지연, 2010).

이른바 미성취 영재의 대부분은 정의적 문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영재아동의 정의적 특성 중 비동시적 특성, 정서적 민감성과 과흥분성, 심리적 취약성 등이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조율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방치되면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과 같은 심리상태를 갖게 되고, 이는 영재아동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 이 방해 요인들은 영재아동이 사회에 부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정서 장애나 대인관

본 논문은 김희경의 2015년도 석사 학위논문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2016.8.8(접수), 2016.8.24(1심통과), 2016.8.26(2심통과), 2016.8.28(최종통과)
E-mail: hskwon@cje.ac.kr(권혁순)

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영재아동은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자살과 같은 병리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윤여홍, 1980). 영재의 부정적인 정서적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지만, 사회를 주도해 나갈 중요한 인재를 상실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영재학생의 정서적 특성에 따른 부적응 문제,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 고등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결과를 초등학생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영재 학생들의 정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미성취와 스트레스,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최은선, 2004; 최은혜와 이지연, 2010; 한기순과 신정아, 2007), 사회-정서적 어려움들 중 하나인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영재학생들의 영재학급과 일반학급에서 또래 관계, 정서적 부적응 행동 등에 대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재학생들이 좋은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외로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려져 외로움을 겪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재 학생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영재 아동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감안할 때, 개별 경험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별 영재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비인지적 특성 및 고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영재 학생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교육적 의미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한 명의 영재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초등 과학 영재 학생의 외로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telling)" 이를 "다시 이야기하여(retelling)" 경험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 관한 연구로서(Clandinin & Connelly, 2000), 외로움을 경험하는 한 초등 과학 영재 학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통해 그의 경험을 이해하기에 좋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관찰과 면담 등이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담임교사, 관찰지도교사의 이야기 등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 대한 해석도 이야기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 초등과학 영재 학생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무엇이며, 그 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하였다.

II. 현장에 다가서기

1. 현장에 존재하기

1) 연구 참여자 선정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초등 영재학생을 선정하기 위해 C교육대학교 부설과학영재교육원의 초등과학 심화반과 초등수학 심화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로움 검사를 실시하였다. Russell *et al.*(1980)이 개발한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를 김교헌과 김지환(1989)이 번역하고 수정한 것을 연구자가 초등학생에 맞게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외로움 설문지는 4점 평정 척도로서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이 섞여 있다. 외로움을 부정하는 문항에 '전혀 느끼지 않음(1점)', '별로 그렇지 않음(2점)', '약간 느낌(3점)', '자주 느낌(4점)'으로 채점하고, 외로움을 긍정하는 문항은 역으로 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외로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90명의 초등 과학 심화반, 초등 수학 심화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로움 검사를 실시한 결과(Table 1), 80점 만점에 평균 64.6점이 나왔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두 학생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예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내러티브를 수집하였고, 초등과학 영재의 외로움에 대해 풍부한 내러티브를 제공한 한 학생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Table 1. Result of loneliness scale

	Score range				
	40~49	50~59	60~69	70~80	Total
Number of students	2	14	53	21	90
(%)	2.2	15.6	58.9	23.3	100

2) 연구 참여자 소개

외로움 검사에 참여한 영재 학생들 중 두 번째로 낮은 점수인 49점을 받은 유진이(가명)는 외로움 검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고, 의지할 수 있거나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할 때 함께 해줄 친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5학년 때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수학·과학 통합 영재학급에서 1년간 영재교육을 받았고, 6학년 때 C교육대학교 부설과학영재교육원에 입학하였으며, 중1 때도 연이어 같은 곳에서 영재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과학은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밝힌 유진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 중 과학을 좋아하고, 특히 생명과학에서 유전공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 1살 차이나는 쌍둥이 남동생 2명이 있고, 아빠는 과학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며, 엄마는 전업 주부이시다.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수학, 과학을 개인적으로 자주 지도해 주셨고, 동생도 지도를 받아왔다.

유진이는 어떤 일이든 똑소리 나게 잘하는 스타일이다. 영재교육원 수업 중 모둠별로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모둠 활동에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에서 보이는 교우 관계의 모습은 친구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다. 외로움 검사 문항 중 '나는 수줍어한다'에서 '전혀 느끼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것도 의사표현이 확실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내러티브 탐구 방법, 면담 방법 등에 관한 기초 작업들을 2013년 6월, 7월에 준비하였고, 연구 목적에 맞는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영재교육원 초등 수학 및 과학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에 외로움 검사를 실시하였다. 외로움 검사를 통해 외로움 정도가 높은 학생 2명을 예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면담 및 영재교육원 수업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2014년 1월에 이루어졌다. 연구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육원의 관찰지도교사, 학교의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두 학생 중 보다 풍부한 내러티브를 가진 유진이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하고, 차후에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연구자의 면담과 관찰, 영재교육원 관찰지도교사들의 수업관찰일지, 담임교사와의 비 구조화된 면담 등이다. 연구 참여자가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수시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대화를 시도하였고, 중요한 사건과 연구에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연구자의 연구 노트에 기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현장 텍스트(field text)인 대화 및 면담 전사 기록과 지도일지 등 수집된 텍스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타나는 내러티브 패턴, 줄거리(threads), 주제(theme) 등을 찾았고, 그것들을 연구 텍스트(research texts)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문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추려내고, 계속해서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함께 묶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줄거리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를 찾아내어 경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다.

III. 한 과학영재 학생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이 장은 연구 텍스트 쓰기 단계로서 다양하게 수집된 현장 텍스트에 근거한 글쓰기로 이루어졌다. 초등 과학 영재학생인 연구 참여자의 외로움에 대한 경험을 살피고자 하였다. 가정,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참여자와 담임교사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것, 그리고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옮겼다.

1. 이야기 하나. 나를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유진이의 부모님은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열정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진이와 두 명의 쌍둥이 동생 모두 매일 저녁에 엄마로부터 영어지도를 받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직접 수학, 과학을 줄곧 가

르쳐 주셨다고 한다.

> 아빠가 가끔 해주긴 하는데 교과과정 안하고 초등학생 2학년한테 중학교 내용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지겨워 가지고 짜증나 가지고 수업하는 도중에 '알겠어요.' 하고 끝낼 때도 있고요.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 1에서 100까지 다 더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식을 1,2학년 때 배웠어요.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유진이의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 반면, 유진이는 아빠의 과도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반갑게 여기지 않고 힘들어 한다. '지겹다',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통해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는 아빠에 대해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 기르기 외에 웹서핑도 취미인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쓸 데 없는 짓'이 되었지만, 유진이는 정보검색사 자격증을 땄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 유진: 교육 말고 다른 거에 관심 많았으면 좋겠는데…
> 연구자: 어떤 거?
> 유진: 음 취미라든가 기르는 거. 웹서핑도 좋아하고요.
> 연구자: 그런 거는 인정을 거의 안 해 주셔?
> 유진: 쓸 데 없는 짓 한다고. 근데 웹서핑은 쓸 데 없는 짓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자격증 땄어요.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공부를 강조하는 부모님과의 심리적 갈등은 유진이에게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부모님이 유진이의 관심사를 좀 더 인정해 주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지원해 준다면 유진이가 취미를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물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햄스터를 키우면서 동물 일지를 쓰는 유진이의 모습에서 영재학생의 면모가 보였다. 하지만 부모님이 유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겉으로 보기엔 밝고 당차보였던 유진이가 왜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다.

2. 이야기 둘.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외톨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유진이는 학급 친구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자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진술하였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쉬는 시간 동안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다. 다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놀고 있는 그 시간에 유진이는 혼자 고립되어 잠을 자는데 시간을 보낸다.

> 연구자: 주로 누구랑 같이 놀아 반에서는?
> 유진: 반에서 놀 때는 쉬는 시간 같은 땐 그냥 졸려서 자니까 놀 시간 없는데
> 연구자: 졸려서 자?
> 유진: 졸려서 자요.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유진이가 쉬는 시간 자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야기했지만,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단순히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학급 친구들로부터의 소외감이 유진이를 쉬는 시간에 '잠을 자는' 위축되는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 반에 여자애들이 10명인데, 이중에 유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고 (중략)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갈 때 유진이랑 버스에서 같이 앉고 싶지 않아서 1주일이나 2주일 전부터 계속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언제 조 짤 거에요?', '유진이는 어느 조에 넣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번호대로 하던가 선생님들이랑 상의해서 할 거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걔 되게 싫어요.' (중략) 이러니까 제가 '유진이는 선생님이랑 앉아서 갈 거다.' 이러면 애들은 안심을 하는 거에요. (중략) 그 정도로 (애들이 유진이를) 싫어했어요.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1년 동안 유진이를 관찰했던 담임교사는 유진이의 이기적인 성향과 말투, 부족한 포용성,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였다. 영재교육원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유진이의 모습들이다.

> 유진이가 똑똑한 건 있는데, 친구들한테는 좀 그래서 안타깝죠. 전혀 손해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중략) 누군가 자기한테 와서 친절하게 해주면 좋긴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그러면 싫어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애만 나한테 먼저 와서 잘해주길 바라고. 유진이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왔다갔다 세 번째 정도 되면 기분 나쁘게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유진이를 피해 버리는 거죠. 상대방 이해심이 부족하고 약간 이기적인 게 있고 포용하는 게

부족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 대화에서 '자기가 정보가 더 많고 내가 더 잘 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에 나왔던 거잖아. 그 음악은 먹잖아.' 말투가 '그것도 몰랐니?' 이런 식이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높은 지적수준을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친구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면 더 이상 의사소통은 진행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유진이는 영재교육원 친구들과 지적 수준이 맞지만, 학교 친구들은 자신보다 수준이 낮고 상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저희반이 꼴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식들이 없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잘난 체라고 하고, 못 알아듣는 게 제일 답답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애들이 저 공부 못한다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가 있는데, 걔랑 저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야기하고…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영재학생들은 자신의 높은 지적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유진이와 '꼴찌' 학생을 비교하는 공격을 할 만큼 유진이를 영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구들로부터 학업성적을 가지고 비교하는 정신적인 괴롭힘, 의도적인 소외로 유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청소하려고 현관까지 나가야 하는데, 얘네들이 문 잠그고 문 밀어서 못 나가게 하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거짓말해요. 선생님한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랬다고. 청소방해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반성문만 쓰고 끝났어요. (유진이와 면담. 1월 4일)

직접적으로 신체적 괴롭힘은 당하지 않더라도 친구들로부터 언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한 경험은 유진이의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고, 유진이를 점점 '혼자'로 만들었다.

억울했죠. 제가 청소 많이 했는데, 많이 시켜가지고. (유진이와 면담. 1월 4일)

유진이와 같은 반 친구들은 유진이에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신체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교사의 눈을 피해 정신적인 괴롭힘과 소외감을 주었다. 담임교사도 유진이를 둘러싼 또래관계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에 많은 고민을 했다. 1년의 시간을 불안하게 지냈을 정도로 담임교사에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왕따를 시키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못하게 하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안하고 은근히 왕따 시키는 게 1년 동안 계속 유지됐고, 저는 사실 유진이 때문에 1년이 불안불안했어요. 유진이를 따 시킨다는 게 치고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걔가 뭘 하면 만약에 일어나서 발표를 한다거나 의견을 이야기한다든가 선생님이 물었을 때 대답을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했을 때 애들이 갑자기 귀를 막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요… (중략) 또 교실 청소하는 7~8명 애들이 책상을 나르는데 걔 책상만 나르기 싫어하는 거죠. '걔 책상이 재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유진이의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유진이를 힘들게 할 때마다 학급 규칙에 맞게 훈계하고 지도하였고 유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유진이를 기피하는 것에 한마음이 되어 더 이상 관계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일찍 먹고 올라와서 5~6명 애들이 유진이 가방을 발로 찬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략) 가방 끈도 끊어졌고. 필통이랑 그 안에 있는 연필이랑 펜도 파손이 됐고. 유진이 보고 가격으로 다 환산을 해 와라. 그 다음날 너희가 다 변상을 해야 한다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문도 쓰고 개인적으로 각자 언제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지 해서 사과도 받고 했죠.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담임교사에 의하면 이러한 괴롭힘이 6학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3학년 때부터 어긋난 관계를 시작으로 계속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 다른 반에도 유진이는 친구가 없었고, 부정적인 일들이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풀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학급친구들로부터 거부되고 우정을 나눌 친구가

없는 유진이에게는 교실 안과 밖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시기에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 이야기 셋.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받는 영향은 교사의 능력보다는 학생들의 눈에 비친 태도, 즉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 혹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신다.'고 보는 것들이 더 클 것이다. 즉, 교사의 태도 그 자체보다는 학생이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에 따라 학생들은 교사의 태도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유진이는 담임 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이야기하였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서운하다', '속상하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 다른 애들은 영재교육 학교에서만 하고… 거기에서 속상한 게 선생님은요, 걔가 영재원 합격하면 합격했냐고 물어보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는 물어보는 거 없고 해서 애들이 저 영재원 다니는 것도 몰라요.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유진이는 담임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고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담임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음을 다음 대화에서도 알 수 있었다.

> 저희 선생님이 자꾸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이야기하고 틀리게 이야기해요.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영재성을 지니고 있는 유진이는 담임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를 하였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부정확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6학년 이후로 이전보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성적이 떨어진 원인이 선생님의 영향도 있다고 여겼다.

유진이의 진술과는 달리 담임 교사는 유진이의 영재성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으며, 수업시간에 드러나는 유진이의 장점에 대해 칭찬을 하였다.

>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애들이 발표에 이용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진이는 해 와요. (중략) 그런데 유진이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해 와요. 국어 시간에 뉴스 만들기가 있어요. (중략) 애들이 조를 만들어서 너는 아나운서하고, 너는 기사 쓰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유진이는 같은 조 할 애가 없는 거에요. (중략) 유진이는 5명이 모여서 한 것보다 더 잘한 거에요. 집에서 가족들을 다 등장시켜서 동영상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훌륭하죠. 그런데 애들이 훌륭함을 인정하기보다 '또 잘난 체 떨었네!' 이러는 거죠. (중략) 다른 애들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뭘 했다는 걸 중요시 여기고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데, 유진이는 그런 거에 의미는 안두죠. 저는 잘 한건 잘한 거니까 칭찬은 해줬죠. 본인도 다른 애들에 비해 잘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지, 애들한테 칭찬 안 받는 거에는 의미를 두지 않더라고요.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일반 학생들은 과제를 잘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반면, 유진이는 자신의 결과물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에너지를 쏟는다. 질적으로 우수해야 한다는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점들이 영재의 정의적인 특성들이지만, 친구들은 완벽한 유진이의 과제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담임교사에게 유진이와 또래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아, 담임교사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힘든 짐이었다. 따돌림 현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 담임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긴 시간동안 지속되어온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긴 시간 동안 면담을 하면서 생활지도가 힘든 6학년 담임으로서 학급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의 시간들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다.

> 우리 반은 6학년이니까 스티커 이런 건 안하고 마이너스 운영제를 했어요. (중략) 1일 반장은 아침 자습 때부터 학교 와 가지고 애들의 생활, 과제 이런 걸 체크해요. (중략) -3점은 남아서 봉사 활동을 하거나 남기, 어려우면 점심시간에 봉사 활동을 하고 저한테 검사를 맡아요. -4점이 넘어가면 봉사 활동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요. 누구를 치거나 싸운 거는 바로 -3점이에요. 벌점에 위계가 있어요. (중략) 애들이 남는 것은 유진이 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일로도 함께 남을 수 있는 거죠. 반성문이 1학기 꺼만 모아서 백 몇 장이에요. 2학기 때는 이삼십 장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략) -3

이 되면 벌써 자기 행동을 자제하더라고요. (중략) 선생님이 일관성이 없으면 유지하기 힘들어요. (중략) 한 줄 한 줄 검사하고, 다시 쓰게 해요. 애 한번 남기면 내 오후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주 짜요하게 해가지구. 그다음부턴 애들이 반성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어요. (중략) 그런데 이걸 안하면 애들 통솔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나마 이걸 해서… (유지를 했죠)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담임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괴롭힌 친구가 반성문 쓰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을 성에 차지 않아했다. 그리고 괴롭힘과 처벌의 반복은 유진이에게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많은 애들 틈바구니에서 유진이를 배려하려는 게 있었는데, 유진이는 자기가 배려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오히려 더 많이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봐 저 싸가지 없는 거 보세요.'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담임교사와의 관계이다. 교사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수업시간에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 내용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면서 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적이 1~2등은 아니에요. 8등 안엔 들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은 탔지만 1,2학기 중간, 기말 모두 합쳐서 총점 냈을 때 5등? 6등 정도에요.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선생님이 다른 길로 샜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틀렸다던가. (중략) 전혀 쓸 데 없는 걸 강조해서 시험을 망칠 때도 있어요.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상위권 성적이 아닌 유진이는 담임교사의 수업방식이나 수업내용이 성적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성적이 이전보다 좋지 않을 때,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영향으로 생각한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서 교사는 아동에게, 아동은 교사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사와 아동 간에는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관계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동의 교사태도에 대한 지각 형성인데, 유진이는 선생님이 자신의 학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을 차별한다고 여긴다.

유진이를 몇 년 동안 괴롭혀왔던 친구들에게 교사가 억지로 친하게 지내라고 강요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부정적인 또래관계,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개선할 수 있고, 교사가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바뀌지 않는 유진이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 시작된 집단 따돌림은 교사로서 풀지 못하는 매듭처럼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유진이는 교사가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에게 학급 규칙에 따른 처벌을 하고 자신을 배려하더라도 친구뿐만 아니라, 교사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평가를 한다. 교사의 능력,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사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친구뿐만 아니라 교사, 즉 교실 안에서 어느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되었다.

4. 이야기 넷. 나를 이해해주는 영재원 친구

유진이는 6학년이 되어 입학한 영재원에서 처음 예영이(가명)를 만났고, 같은 반에 유진이를 포함해서 4명의 여학생이 있지만 항상 예영이와 같이 다니고, 다른 두 명의 여자 친구와는 교류가 거의 없다. 여학생 4명 중 유진이와 예영이는 의사표현이 적극적이고 모둠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두드러졌지만, 나머지 두 명은 수업 중에 말이 거의 없고 소극적인 성향이 강했다. 지난 여름집중교육 때 예영이와 같은 기숙사 방으로 배정을 받았었고, 이번 겨울집중교육에는 다른 방에 배정을 받았었는데, 서로 같은 방에서 지내도록 교사에게 요구해서 방을 바꿀 정도로 예영이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 수업상황에서도 탐구활동을 할 때 같이 짝을 이루어 주로 실험을 하고, 서로 호흡이 잘 맞기도 하다. 영재원에서 다수의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지적수준, 성향 등이 비슷한 소수의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영재원) 친구가 더 확실히 잘 이해해준 것 같아요. 뭘 말하면 잘 이해해주고 말뜻도 잘 이해하고 공감도…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쉬는 시간에는 예영이 외에 다른 남자 친구들과

도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게임에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유진이는 자신과 잘 맞는 친구의 기준이 '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친구'이다.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학교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영재원 친구들은 자신과 수준이 맞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잘난 체 한다고 말하지 않아서 잘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 학교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하면 잘난 체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다 수준이 맞으니까 말하는 게 일상적으로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맞아서…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유진이와 같은 영재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공통분모가 적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외를 당할 수 있지만, 영재원에서는 비슷한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 의식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이는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IV. 한 과학영재 학생의 외로움 경험의 의미

지금까지 연구 참여자의 외로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telling)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외로움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함',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방식', '위안을 얻는 자신만의 세계', '영재교육원이 탈출구가 됨'이라는 네 가지 의미로 나누어 다시 이야기(retelling)하고자 한다.

1.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함

친구가 적든 많든 간에 영재들은 가장 가치 있는 대인관계를 필요로 한다(이영철, 2009). 이 특별한 친구는 독특함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박감, 냉대, 그리고 모욕 등을 참아내는데 도움을 주므로 안식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또래간의 대화를 통해서 직면하게 될 상황들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게 발달되고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자기 가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진이는 학교에서 마음이 잘 맞고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없었다. 자신이 만든 비교 기준에 따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평가할 때 그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유진이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는 지적 수준이 맞는 친구들을 원하였다. 영재들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도전적인 과제를 공부하고, 토론하고 싶어 한다(박성익 등, 2003). 유진이가 '지적 수준', 즉 '능력' 중심으로 친구를 판단하는 점에서 영재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도 높아,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친구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통해 영재학생이 친구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외로움을 보여주었다. 유진이가 지닌 본래의 성향이 친구와 관계를 맺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진이는 학교 친구들을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유진이의 말이 '잘난 체'일 뿐이다.

영재아동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권지숙, 2008). 그리고 강한 독립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직화하려고 시도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 사이에 긴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Webb *et al*., 1982). 유진이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인지, 입장 바꿔 생각하는 방법이나 배려하는 것에 있어 서툴다. 그리고 완벽하게 잘 하기 위한 열정이 때로는 지나쳐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친구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져, 독단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무례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유진이의 이러한 행동과 관련된 일화를 담임교사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 유진이는 요리실습 할 때나 과학실험 할 때 보면 자기가 막 해요. 아는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으니까 하죠. 그런데 뭘 할 때 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건 잘 못해요. (중략) 얘네가 뱁버거를 만든대요. 뱁 안에 햄이랑 김치를 볶아서 넣어가지고요. 유진이는 머릿속에 절차가 있는 건데, 나머지 4명이랑 안 맞는 거에요. (중략) 애들한테 아무런 상의를 안 한거죠. 유진이가 갑자기 물을 부으니까 다른 애들이 '야 너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죠. 유진이가 '왜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네 들은 왜 그러니 진짜' (중략) 유진이 혼자 독단적으로 이상하게 하니까 의견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애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어.'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하지 않고 애들한테 화를 내는 거에요. '너네 이상하다. 이렇게 얹래 하는 거야. 너넨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죠.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몇 년 동안 유진이와 같이 지내왔던 학교 친구들은 유진이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에 대해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유진이를 멀리하게 되었다.

연구자: 유진이는 영재얹 친구들이 더 좋대요. 어떤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잘난 체 한다고 놀리는 게 아니라 받아준다는 거죠.

교사: 영재얹 걔네들은 가끔 만나니까 유진이의 단점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학교 애들은 늘 같이 있으니까 죽겠는 거에요.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영재의 정서적 취약성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과 상호 작용하여 나온다(윤여홍, 1996). 주변 환경과 영재적 특성이 맞물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영재학생들이 또래나 교사로부터 문제행동으로 비춰지는 것들 중에는 '논쟁적이다, 지시 따르기를 거부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지나치게 경쟁적이다(Whitmore, 1979)' 등을 들 수 있듯이, 유진이의 행동은 또래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영재성을 지니고 있는 유진이는 학급에서 일반 학생보다 인지적인 수준이 높아, 이를 인정받고 지지를 얻고 싶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유진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에게 유진이는 '아는 체 하는 아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적인 우월성을 겸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드러내기 때문에 친구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

유진이는 나름대로 허물없이 지내려고 한 건지 그런 행동을 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 상태는 배려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면 때문에 애들이 싫어하는구나.' 느껴졌던 거죠.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가끔 가다 말하는 투라든지… 뭐라 할까 약간 이기적인 면도 있으면서 예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버릇이 없게 이야기해요. (중략)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들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유진이는 '이런 건 유행 지났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은 기분이 나쁘죠. (중략) 고치면 좋겠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기분이 나쁜 말 있잖아요.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집단 따돌림 현황에 관해 연구한 박천희(2003)는 따돌림 당하는 학생의 원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친구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4%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또한 박경숙 등(1998)이 실시한 왕따 피해조사에서 따돌림을 당한 학생의 특성이 잘난 척, 예쁜 척, 착한 척, 돈 많은 척, 짱인 척하는 친구(65.9%)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담임교사는 유진이의 영재성과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면을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친구들과 융화되기에 부족할 수 있다.

유진이도 본인이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고, 꿈이 뚜렷하죠. 다른 애들은 그러지 않는데 생명과학 쪽으로 꿈이 뚜렷하고,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인간관계 면에서 뭔가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이러한 유진이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은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담임교사는 어머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정에서도 엄마가 약간 양육방식에서 참지 않는 것 그런 게 있어요. '넌 그럴 때 가만히 있었니?' 이런 거. 엄마가 애를 감싸주고 포용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고 '먹하면 넌 담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중략)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너도 생각해 봐라. 너한테도 잘못한 게 분명 있을 거다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유진이 엄마는 대부분 '내가 들어도 걔가 너무 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건 네가 사과를 안 받아도 내가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런 식인 거죠. (중략) 엄마가 꼭 사과를 받아야 속이 풀리는… 사실 그래서 애들도 한 번씩 사과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나온 사과는 아니니까 계속 반복되었었죠.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상대에 대한 배려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와 같은 정서적 능력들은 학교에서의 학습보다는 가정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들이다. 학급 안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유진이에게도 있음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유진이에게 올바른 행동에 대해 지도하고 격려할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유진이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탓으로 원인을 두었다.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진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들이 가방을 발로 막 차고 그런 일을 겪고 이쪽 엄마 저쪽 엄마 전화하고... 애들한테 그 정도로 미움을 받는 애를 보니까 유진이가 자살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나라면 아님 정신적으로 약한 애들 경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애들이 너무나 자기를 싫어하니까. (담임 교사와 면담. 2월 21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청소년의 외로움에 가장 큰 원인이 된다(도현심, 1998). 유진이가 학교 친구들로부터 당한 집단 따돌림의 경험은 유진이를 혼자 있도록 만들었다. 집단 따돌림의 경험은 유진이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자는 행동을 하게 하였고, 이는 친구들과 소통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소통 거부로 이어진다. 이러한 측면은 관계에 몰입하지 않고 적극적인 분리를 시도하는 외로운 사람의 심리손상반응(Rokach, 2001)이라 할 수 있다.

2.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방식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알고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며,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유진이는 부모님이 내가 공부 외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등의 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다고 하였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초등영재아의 행복의 조건 중 하나이면서(전병옥과 한기순, 2014),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유진이는 '동물 기르기'를 좋아하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반짝이며 몰입하였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하지 못하게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부모님에 대해 '서운하고 답답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유진이의 부모님은 실제 유진이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설정하고 요구하며, 기대치에 어긋나는 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우린 아빠가 가르치는 거 너무 싫어요. 도형 합동을 배우잖아요. 제 동생이 5학년 도형 합동 배우잖아요. 근데 자꾸 닮은꼴 배웠다고 우기면서 닮은꼴 그리라고 닮은꼴의 조건 말하라고... 배웠는데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유진이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재학생의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따뜻한 관심과 격려,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으로 지각한다면 자녀들의 성격 형성과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지만, 보호와 통제가 지나치다고 느낄 때는 우울감이 높아진다(정은선과 조한익, 2009). 영재자녀를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가정에 대해 좀 더 공감하고 조화로우며 자율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이치훈, 2012).

유진이는 부모와 갈등 상황에 빠질 때 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거나,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유진이가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괴로워하고 자발적으로 소통을 거부하며 외로운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계속하면 잔소리만 몇 시간 길어지기 때문이다.

유진: (엄마는) 말이 무서운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말을 해요. 1분에 한 번씩 왜 그렇게 말했는지 계속 중얼중얼중얼. 아빠는 더 하는데. 그래서 동생이 아빠가 한번 시작하면 동생들끼리 '소설 시작이다.' 이러면서.

연구자: 아 계속 반복돼?

유진: 계속 엄청 논리적이게 이게 왜 잘못됐는지 한 과장 되서 3시간? 차라리 말 듣는 게 나아요. 아빠는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동물 기르기와 웹서핑이 취미인 유진이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취미활동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였다. 부모님이 몸집이 큰 동물, 키울 때 손이

가는 동물 등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몸집이 작으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기를 수 있는 햄스터를 선택한 것이 한 예이다. 그리고 취미활동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해서 취미와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보검색자격증을 획득하는 등 나름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었다. 유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취미 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동물에 대해 다방면의 지식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선택적으로 주의집중하면서 풍부한 양의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 책을 읽는 면에서 영재성을 볼 수 있다(박성익 등, 2003). 높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유진이는 부모나 교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높다.

영재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통제하여,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영재 학생들은 가정 분위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높으며(허창재, 2002), 특히 가족에게서 받는 지나친 기대와 간섭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류은주 등, 2011).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지원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영재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민정과 박인전(2001)에 의하면 아버지의 과잉통제 및 제한이 높을수록 자녀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고, Brage *et al.*(1993), 임연진과 나유미(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이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시하는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가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3. 위안을 얻는 자신만의 세계

영재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선택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며 싫어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으려 한다(박성익 등, 2003; 윤여홍, 1996). 유진이는 '흠뻑 빠져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동물 기르기를 좋아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 물고기, 병아리, 달팽이, 장수풍뎅이, 거북이 등 여러 동물들을 집에서 키워보았고, 지금은 햄스터를 키우고 있다. 동물을 기를 때 책을 통해서 그 동물에 대해 넓고 깊은 지식을 최대한 완벽하게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동물 기르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러한 모습은 오랫동안 집중하여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영재의 지적 특성(박성익 등, 2003)과 연결 지을 수 있다.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구입해서 닭이 될 때까지 키운 적도 있고, 스티로폼으로 달걀 부화기를 만들어 달걀 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을 정도이다. 햄스터를 기르면서 개인 블로그에 동물일지를 기록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먹이주기, 잠자리 준비, 운동시키기 등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하였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방에서 햄스터랑 대화하거나, 햄스터가 먹이를 먹는 것, 노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시간을 보낸 후 잠자리에 든다. 햄스터가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 한번 동물을 키우면 그거에 대해 완전 다 완벽하게 지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영원히 키울 수 있으니까.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 저 원래 병아리 키웠었는데요. 병아리가 닭이 될 거에요. 암컷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수컷이었어요. 새벽마다 우니까 힘들어 가지고.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 햄스터를 친구로도 생각해요. 제 블로그 모델로도 여기고… 일지를 쓰니까. 햄스터 키우면서 책임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책임감. (유진이와 면담. 1월 4일)

이명선(2011)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일반 학생들이 외로움을 겪을 때, 또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관개 개선을 시도한다.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원하는 것과 버려야할 것을 적절히 타협하는 관계기술을 익힌다고 한다. 외로움의 해결방안이 또래, 즉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유진이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 기르기나 동물을 잘 기르기 위한 책을 읽는 취미활동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있다. 또래가 필요하기에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만 적당한 또래가 없으면 책과 같은 다른 것으로 친구를 대신하는 영재의 특성(박성익 등, 2003)과 연결되는 점이다. 유진이는 자신만의 세계를 통해 위안을 얻는다. 학교, 부모님, 친구들로부터의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또래와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만의 세계는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빠져 있어 보통의 사람들과 공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영재학생들이 또래와 관심영역이 달라, 오히려 친구 사귀기가 힘들 수 있게 된다(윤여홍, 1996).

4. 영재교육원이 탈출구가 됨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공교육 차원에서의 영재교육을 확대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재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과 더불어 미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영재학생들이 전문적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미래 국가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교육청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는 잠재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학생들이 미래 지식의 개척자로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탐구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영재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 시간을 통해서 도전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주제와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며,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재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서의 시간들을 오로지 지적인 성장을 통한 만족감만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는 영재학생에게는 영재교육원이 지식과 재능을 발견하는 교육의 장소로서의 의미 외에 가정과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탈출구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유진이는 학교 친구를 벗어나 자신과 지적 수준이 맞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

> 연구자: 영재원에서 1년 동안 배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어?
> 유진: 친구를 사귄 거…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 여기 친구가 더 확실히 잘 이해해준 것 같아요. 뭘 말하면 잘 이해해주고 말뜻도 잘 이해하고 공감도… (유진이와 면담. 1월 3일)

> 유진이가 방학 때 영재교육도 받고 또 외국어교육원에서 영어 교육을 며칠 받은 적이 있어요. 보니까 유진이가 일기에다가 '학교 다니는 것보다 다른 데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 (학교)친구들 안보니까 좋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중략) 어머니도 유진이가 정말 좋아하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담임교사와 면담. 2월 21일)

영재교육원 교육을 통해서 일반학급에서 할 수 없는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지적우월성을 인정받으며, 탐구활동을 통해 성취감뿐만 아니라, 비슷한 관심과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경쟁의식보다는 동질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과 잘 맞는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영재들이 좀 더 쉽게 사회성을 기르게 된다(Rodell, 1985)는 점을 고려할 때, 영재교육원에서의 경험이 영재학생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V. 이야기를 마치며

1. 결론짓기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 영재 학생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 명의 초등 과학 영재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수집하였다. 경험의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영재학생의 지도에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인 유진이의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과학 영재학생의 완벽주의와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은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해 외로움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 등 다양한 관계와 환경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고, 그 경험들이 누적되었을 때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둘째,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 방식은 초등 과학 영재학생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영재학생은 부모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가정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지지해 주길 기대하지만, 부모님은 공부, 지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그 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불만을 느낀다. 자신의 관심 분야와 욕구가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 부모와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고, 관계의 단절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셋째, 외로움을 느끼는 초등 과학 영재학생은 자신만의 세계를 통해 위안을 얻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할 때만큼은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외로움을 느낄 때 또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일반 학생과 달리, 영재아동은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독립적 취미활동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넷째, 영재교육원은 초등 과학 영재학생의 인지적 성장을 이끄는 교육 장소인 동시에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정서적인 위안처가 되는 장소이다. 영재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을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거나, 또래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영재교육원에서는 긍정적 또래 관계나 동질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2. 시사하는 점

초등 과학 영재학생의 외로움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토대로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찾아보았다.

첫째, 초등 과학 영재학생이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열린 분위기를 만들고, 친구와의 갈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적절한 양육태도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는 영재아동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녀의 생활을 존중해가며,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영재자녀의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성숙도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재'이기에 인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초등'학생이기에 어리게 보고 통제만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님을 다가가고 싶지 않은 '벽'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영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아동의 특성에 따른 세심한 부모의 지도와 양육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초등 과학 영재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학급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영재학생은 인지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에 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 학급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개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영재 학생 역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중 한 명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담임교사는 영재아동에게 학업적인 면과 함께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영재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재들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영재아동은 학급에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 과학 영재학생의 긍정적인 정서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 및 리더십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초등 과학 영재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즐겁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삶의 모습을 지닐 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재학생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성장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의 발달도 함께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바른 판단력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으로 대상 연령과 성별이 제한되어 있다. 외로움의 정서는 남·여 구분이 없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두 느낄 수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각 발달 단계에 따른 외로움의 경험을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 과학 영재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의 환경과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외로움은 그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기 힘들고,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에 쉽게 단정 지을 수 없고, 다양한 정서적인 감정들로 표현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서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감정들과 외로움의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지숙(2008). 영재의 완벽주의 특성과 또래관계 성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교헌, 김지환(1989). 한국판 UCLA 고독척도. 학생생활연구, 16, 13-30.

도현심(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

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7-9.
류은주, 김정은, 백성혜(2011).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 영재에 대한 고찰. 영재교육연구, 21(3), 659-682.
박경숙, 손희권, 송혜경(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언, 한기순(2003). 영재교육학원론. 파주: 교육과학사.
박천희(2003). 집단따돌림 현황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우경(2003). 부적응 영재아 상담에 대한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2(2), 65-86.
여상인, 박상희(2005). 초등과학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교우관계 비교. 영재교육연구, 15(1), 45-59.
우민정, 박인전(2001). 초기 부모: 자녀 결합형태 및 가족기능과 아동의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6(2), 25-43.
유미현, 조성신, 여상인(2011). 영재학생의 일반학급 및 영재교육기관에서의 학교생활만족도. 영재교육연구, 21(2), 465-484.
윤여홍(198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판별 특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여홍(1996). 영재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임상연구: 정신 건강을 위한 지도. 영재교육연구, 6(1), 53-72.
윤초희, 윤여홍, 김홍원(2004). 지적으로 우수한 초등 영재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77-196.
이명선(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외로움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질적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철(2009). 초등학교 수학 영재의 일반학급과 영재학급에서의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치훈(2012). 초등영재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연진, 나유미(2003).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5(2), 61-69.
전병옥, 한기순(2014). 초등영재아동의 '행복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영재교육연구, 24(3), 399-420.
정은선, 조한익(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조석희(199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은선(2004). 초등 영재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혜, 이지연(2010). 초등영재아동의 지각된 성취압력과 스트레스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19(3), 265-285.
한기순, 신정아(2007). 성취영재와 미성취영재는 어떻게 다른가?: 학습전략, 동기, 능력신념, 그리고 문제해결 성향의 차이분석. 영재교육연구, 17(1), 27-50.
허창재(2002). 영재아동의 스트레스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rage, D., Meredith, W. & Woodward, J. (1993). Correlates of loneliness among midwestern adolescents. *Adolescence*, 28(3), 685-694.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Rodell, W. (1985).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in gifted preschool children. *Remendial and Special Education*, 6(4), 6-11.
Rokach, A. (2001). Criminal offense type and cause of lonelin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3), 277-291.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Webb, J. T., Meckstroth, E. A. & Tolan, S. S. (1982). Guiding the gifted child: A practical source for parents and teachers. Ohio Psychology Pubulication Company.
Whitmore, J. R. (1979). Discipline and the gifted child. *Roeper Review*, 2(2), 42-46.